

나주시, ‘나주들애찬한우’ 알리고 지역 한우 소비 촉진 나서

나주축협과 한우 홍보·소비 촉진 행사 추진



나상필 조합장(오른쪽)이 공직자에게 나주들애찬한우를 홍보하며 불고기를 담고 있다. /나주시 제공

연일 이어지는 폭염 속에서 시민의 일상을 지키기 위해 애쓰는 공직자들의 노고를 격려하고 지역에서 생산된 한우의 가치를 알리는 자리가 마련됐다.

13일 전남광주통합특례시 나주시(시장 윤병태)에 따르면 이날 시청 구내식당에서 나주축산업협동조합과 함께 ‘나주들애찬한우 브랜드 홍보 행사’를 열고 직원들에게 나주들애찬한우 불고기를 점심 메뉴로 제공했다.

이번 행사는 무더운 날씨에도 각자의 자리에서 업무에 힘쓰고 있는 공직자들을 격려하고 지역 대표 한우 브랜드인 ‘나주들애찬한우’를 알리는 한편 지역 축산물 소비를 촉진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행사에는 나상필 나주축산

업협동조합장을 비롯한 축협 관계자들도 함께해 직원들에게 불고기를 제공하고 나주들애찬한우의 우수성을 알리는 데 뜻을 모았다.

‘나주들애찬한우’는 ‘들애 가득 찬 한우’라는 의미로 나주의 풍요로운 들녘과 한우가 어우러진 이미지를 담은 지역 대표 한우 브랜드다. 지난해 9월 브랜드 선포식을 열고 제21회, 제22회 ‘영산포 흥어·한우축제’에서 시민과 방문객들에게 많은 관심을 받으며 지역의 대표 미식 브랜드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특히 이달 말부터는 나주축협물과 나주물 등 다양한 유통채널을 통해 한우 정육제품 판매를 확대할 예정이다. 소비자들이 지역 한우를 보다 편리하게 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서정백 기자

담양, 제81주년 광복절 맞아 독립유공자 유족 위문

화순군문화관광재단, ‘화순문화채집’ 참여자 모집

박종원 담양군수가 제81주년 광복절을 앞두고 독립유공자 유족을 직접 찾아 선열들의 희생과 헌신에 감사와 존경의 뜻을 전했다.

담양군은 12일 박종원 군수가 관내 독립유공자 유족 6가구를 방문해 위문금을 전달하고 생활 속 불편사항과 애로사항을 살피며 유족들과 이야기를 나눴다고 밝혔다.

이번 위문은 조국의 독립을 위해 헌신한 독립유공자의 숭고한 뜻을 기리고 그 희생을 기억하며 유족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기 위해 진행됐다. 이에 앞서 박종원 군수는 지난 11일 보훈단체장들과 간담회를 갖고 국가유공자와 유족의 복지향상, 보훈단체 운영 지원 등 보훈정책 전반에 대한 현장의 의견을 들었다. /강종연 기자

(재)화순군문화관광재단(이사장 임지락)은 지역의 다양한 문화주체를 발굴·연결하고 주민 주도형 문화활동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2026 행복전남 문화지소’ 사업의 일환으로 ‘화순문화채집’ 참여자를 모집한다고 13일 밝혔다.

‘화순문화채집’은 화순에서 활동하는 예술인·문화활동가·시민이 한 자리에 모여 지역의 문화적 현안을 공유하고, 필요한 문화 의제를 직접 발굴해 함께 기획·실행하는 문화네트워크 사업이다.

이번 사업은 그동안 개별적으로 활동해 온 지역 문화주체들이 서로의 경험과 아이디어를 나누고, 공통의 관심사와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협력할 수 있는 연결망을 구축하는데 목적이 있다. /남호경 기자

영광군, 고유가 피해지원금 사용 서두르세요!

고유가 피해지원금 8월 31일까지 사용 당부



고유가 피해지원금 사용기한 포스터 /영광군청 제공

영광군(군수 장세일)은 고유가로 인한 군민의 경제적 부담을 덜기 위해 지급한 고유가 피해지원금의 사용기한이 곧 만료됨에 따라, 지원금을 기한 내 빠짐없이 사용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에 나선다.

영광군은 고유가 피해지원금을 아직 사용하지 않았거나 잔액이 남아 있는 군민을 대상으로 문자메시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군 누리집 등을 통해 사용기한을 집중 안내할 계획이다.

고유가 피해지원금은 신청자 본인 영광군 내 사용 가능한 가맹점

에서 사용할 수 있으며, 사용기한은 오는 8월 31일까지이다. 사용기한이 지나면 사용하지 않은 잔액은 자동 소멸되므로 반드시 기한 내 사용해야 한다.

다만, 유흥·사행업종, 온라인 전자상거래 등 일부 업종에서는 지원금 사용이 제한되며, 잔액은 영광사랑카드로 지급받은 경우 ‘그리고’ 앱을 통해, 신용·체크·선불카드의 경우 각 카드사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고유가 피해 지원금 사용처 등 자세한 사항은 영광군 누리집 공지사항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영광군 관계자는 “고유가 피해지원금 사용기한이 지나 잔액이 소멸하는 일이 없도록 반드시 기한 내 사용해 주시길 바란다”며 “전통시장과 지역 상점 등에서 적극 사용해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힘을 보태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군은 남은 기간 동안 지원금 사용 안내를 강화해 군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지역 내 소비 활성화에도 힘을 계획한다. /김진기 기자

장성군, 백양사 국가유산 체험 프로그램 인기

백양사 전통산사 국가유산 활용사업 추진...30일 ‘산사의 숲속에서’ 운영



장성 백양사 국가유산 체험에 참여한 어린이들이 프로그램을 즐기고 있다. /장성군 제공

천년고찰 백양사에서 만끽하는 국가유산 체험 프로그램의 참여 열기가 뜨겁다. 장성군이 추진 중인 ‘백양사 전통산사 국가유산 활용사업’이 지역 고유의 문화 콘텐츠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전통산사 국가유산 활용사업’은 사찰이 보유한 국가유산 등 다양한 자원을 활용해 전통산사의 역사·문화적인 가치를 전달하는 국가유산청 공모사업이다. 장성군은 2023년 최초로 사업 대상에 선정된 이래 2024~2025년 2년 연속 우수사업에 선정되는 등 콘텐츠의 우수성과 운영 역량을 인정받았다.

올해 활용사업의 이름은 ‘백학타고 백양에 노닐다’로 명승 백학봉과 보물 소요대사부도탑, 천연기념물 비자나무숲 등 백양사 인근의 유산들을 직접 보고 체험하며 역사, 문화, 생태적인 가치를 배우는 참여형 프로그램이다.

프로그램은 △산사의 숲속에서 △양이의 보물찾기 △범당 지은 사랑들로 구성되어 있다. 먼저 ‘산사의

숲속에서’는 백양사 비자나무숲을 걸으며 물소리, 바람소리, 새소리 등 자연의 소리를 채집하는 특별한 체험 기회를 제공한다.

1000년 이 넘는 세월 동안 사찰과 숲을 지켜온 스님들의 이야기를 연극으로 만날 수도 있다. 이번 달에는 30일 오전 백양사 쉼터에서 열린다. (사)광주문화나루 누리집에

서 19일 오후 1시부터 신청할 수 있고, 체험비는 팀당 2만 원이다. ‘양이의 보물찾기’는 백양사의 캐릭터 ‘양이’와 함께 성보박물관에 전시된 부도와 탕화, 사찰 건축문화유산 등을 탐방하며 다양한 과제를 수행하는 프로그램이다. 백양사의 역사와 문화유산을 아이들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돕는다. /김재섭 기자

